

제1차 십자군 전쟁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재해석*

이동민**

A Multiscalar Reinterpretation of the First Crusade*

Dong-min Lee**

요약 : 본 연구는 중세 서양사의 대전환점이라 평가받는 십자군 전쟁의 시초이자, 4개의 십자군 국가가 성립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 제1차 십자군 전쟁을 지리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십자군 전쟁은 단순히 성지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리스도교 문화권과 이슬람 문화권 간의 종교전쟁을 넘어, 서유럽과 동로마, 이슬람 세력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지정학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일어난 역사지리적 사건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제1차 십자군 전쟁을 서유럽 스케일, 동로마 스케일, 이슬람 세력 스케일, 성지 예루살렘 스케일이라는 네 개의 지리적 스케일에 초점을 맞추어 다중스케일적 접근을 토대로 재해석하였다. 연구 결과 제1차 십자군 전쟁의 배경에는 봉건혁명에 접어든 서유럽의 경제력·군사력 강화 및 내부적 모순, 아나톨리아반도를 상실하는 등과 같은 동로마 제국의 지정학적 위기, 이슬람 세력의 지정학적·문화역사지리적 분열, 셀주크 제국 치하에서 예루살렘으로의 그리스도교도 순례 붐쇄 등과 같은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의 지정학적·문화역사지리적·군사지리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이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제1차 십자군 전쟁의 원인과 전개, 나아가 전쟁사에 대한 지리적 접근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를 제시한다.

주요어 : 제1차 십자군 전쟁, 다중스케일적 접근, 서유럽, 동로마 제국, 이슬람 세력, 예루살렘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reexamine the First Crusade, a great turning point in Medieval European history that allowed the establishment of the four crusader states, from a geographic perspective. The Crusades are a series of historical geographic events associated with the diverse interests and complex relations of geopolitical actors in Western Europe, the Byzantine Empire, the Islamic world, and Jerusalem in the Holy Land, not merely religious wars over the sovereignty of the Holy Land between the Christian and Islamic worlds. Accordingly, this study attempted to reinterpret the First Crusade via a multiscalar approach focusing on the four geographic scales of Western Europe, the Byzantine Empire, the Islamic World, and Jerusalem.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First Crusade was associated with the interactions of diverse geospatial, cultural, historical-geographic, and military-geographic actors on various scales, such as the prosperity and internal contradictions of Western Europe in the era of the Feudal Revolution, the geospatial crisis of the Byzantine Empire, which had lost Anatolia, the geospatial and cultural-historical separations of the Islamic World, and the Seljuk Empire's blockade of Jerusalem against Christian pilgrim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meaningful lines of discussion on geographic approaches to the causes and processes of the First Crusade and its military history.

Key Words : The First Crusade, Multiscalar approach, Western Europe, Byzantine Empire, Islamic world, Jerusalem

*본 논문을 작성하는 데 중요한 성찰과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김광연 (주)위즈덤하우스 편집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dr.dongminlee@gmail.com)

I. 서론

십자군 전쟁은 중세를 대표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1096년부터 1291년까지 무려 9회에 걸쳐 일어난 십자군 전쟁은, 성지 예루살렘 수복을 목표로 전 유럽이 이슬람 세력과 2세기에 걸쳐 총력전을 벌인 중세의 대사건이었다(Seibt, 1987, 차용구 역, 2013; Blaydes and Paik, 2013). 십자군 전쟁에는 평민이나 몰락 귀족에서부터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국왕,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인원이 참여하였고,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이슬람 세력의 발흥으로 위축되었던 유럽 세계의 지중해 무역이 부흥하는가 하면 동로마 제국이 치명타를 입고 몰락하는 등 중대한 역사적·역사지리적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다(Frankopan, 2012, 이종인 역, 2018; Blaydes and Paik, 2016). 아울러 십자군 전쟁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와 장원 경제에 토대한 중세 봉건제에 타격을 입히고 상업 도시의 발달을 촉진하는 등, 중세 유럽의 이념적·경제적·사회적 질서가 해체되고 르네상스와 근세로의 이행을 유발한 역사적 대사건으로 평가받기도 한다(Haskins, 1927, 이희만 역, 2018; Blaydes and Paik, 2016). 즉, 십자군 전쟁은 중세 서양사를 관통하는 대사건이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따라서 서양사 연구와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는 통설과 상이한 부분도 작지 않다. 우선 십자군 전쟁은 ‘실패의 연속’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많다. 왜냐하면 제1차 십자군 전쟁에서 십자군은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예루살렘 왕국(Kingdom of Jerusalem), 안티오키아 공국(Principality of Antioch), 트리폴리 백국(County of Tripoli),¹⁾ 에데사 백국(County of Edessa)이라는 4개의 십자군 국가를 세웠으며, 이들은 짧게는 52년(에데사 백국, 1098-1150)에서 길게는 2세기 가까이(예루살렘 왕국, 1099-1291) 지속했다. 비록 1187년에 아이유브 왕조(Ayyubid dynasty)가 예루살렘 왕국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했지만, 예루살렘 왕국은 그 뒤에도 100년이 넘도록 존속했을 뿐만 아니라 서유럽 역시 예루살렘의 재탈환과 이슬람 세계의 약체화를 위한 십자군 전쟁을 수 차례 이상 이어 갔다. 즉, 십자군 전쟁은 ‘이루어질 수 없는 성지 수복’이라는 허울만을 좇았던 ‘실패로만 점철된 전쟁’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 및 그 일대의 지배권을 둘러싼 그리스도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 사이의 장기간에 걸친 항쟁이라고 보는 편이 옳다(홍용진, 2014).

특히 제1차 십자군 전쟁은 성지를 탈환하고 예루살렘 왕국, 안티오키아 공국, 트리폴리 백국, 에데사 백국이라는 십자군 국가를 수립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에만 한정해 놓고 본다면 성공적이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십자군 전쟁은 종교적 열망이나 배타성 뿐만 아니라, 중세 서유럽과 동로마 제국, 이슬람 세력의 다양한 정치·경제·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 거대한 전쟁이었다(Haskins, 1927, 이희만 역, 2018; Ostrogorsky, 2006, 한정숙·김경연 역, 2014; Latham, 2011). 물론 십자군 전쟁 과정에서 무고한 인명 살상이나 민간인 학살 등의 잔혹 행위가 다수 일어났고, 이 때문에 제1차 십자군의 예루살렘 점령 900주년인 1999년 7월 15일에는 일군의 미국과 유럽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이슬람교도와 유대인, 정교회 신자들을 대상으로 십자군 전쟁에 대한 공식 사과를 했으며, 이는 이듬해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십자군 전쟁에 대한 공식 사죄로 이어졌다(Megoran, 2010). 하지만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빚어진 각종 잔혹 행위에 대한 반성의 중요성과는 별개로, 십자군 전쟁을 단순히 종교전쟁, 또는 선과 악의 이분법 같은 식으로 접근하는 관점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제1차 십자군 전쟁은 성지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지리적 성격이 강한 목표를 가졌다. 그리고 중세 유럽과 이슬람 세력의 지정학적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서유럽, 동로마 제국, 이슬람 세력이라는 거대한 공간적 스케일의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일어난 전쟁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제1차 십자군 전쟁은 역사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견지에서도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제1차 십자군 전쟁과 관련된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의 상호연관성이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접근을 통한 재해석이 이루어질 필요성 또한 간과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2백 년 가까이 이어진 십자군 전쟁의 효시이자 그 자체의 결과만 놓고 보자면 성공을 거두기도 했던 제1차 십자군 전쟁을, 지정학적·역사지리적 관점에서 다중스케일적 접근을 토대로 재해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II. 이론적 배경

1. 십자군(Crusade)의 개념 정의와 십자군 전쟁 개관

십자군 전쟁을 뜻하는 영어단어 ‘crusade’는 십자가를 뜻하는 프랑스어 단어 ‘croix’에 유래²⁾하며, 십자군 전쟁 외에 성전(聖戰)이나 어떠한 정치적·사상적 신념을 위한 전쟁, 투쟁 등을 의미하는 말로도 쓰인다(Metcalf, 1995). 십자군은 성전을 뜻하는 단어인 만큼, 엄밀히 말해 십자군 전쟁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예루살렘 탈환 및 확보를 위한 전쟁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독일기사단(Teutonic Order), 리보니아 검형제 기사단(Livonian Brothers of the Sword) 등이 주도하여 그리스도교 신앙이 퍼지지 않았던 발트해 일대를 정복하고 해당 지역의 토착 신앙을 말살한 다음 그리스도교 신앙과 문화를 이식한 북방 십자군(1147-1410) 또한 십자군 전쟁의 한 부류에 해당한다(von Güttner-Sporzyński, 2015). 바예지트 1세(Bayezid I)가 지도하는 오스만 제국의 서진(西進)을 막기 위해 1396년 헝가리 왕국의 주도 아래 신성 로마 제국, 프랑스 왕국, 잉글랜드 왕국, 폴란드 왕국, 왈라키아 공국, 베네치아 공화국, 제노바 공화국, 불가리아 제국, 독일기사단 등이 결성한 범유럽 연합군 역시, 이교도인 오스만 제국에 맞서 그리스도교 세계를 지키는 뜻에서 니코폴리스 십자군이라 불리기도 한다(Kranzieritz, 2020).³⁾ 이외에 중세 서유럽에서 무수히 일어났던 이단 종파나 후스파 그리스도교⁴⁾ 등을 진압하기 위한 종교전쟁에도 십자군이라는 명칭이 붙은 경우가 많다(Barber, 2000; Fudge, 2017). 이처럼 십자군이란 단순히 성지 예루살렘 탈환을 위한 군사적 원정만을 지칭하는 명칭이 아니라 중세 서유럽에서 종교적 명분을 바탕으로 일어난 전쟁 전반을 일컫는 개념이기도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다루는 성지 수복을 모토로 내건 십자군을 따로 ‘성지 십자군(Holy Land Crusades)’이라 지칭하기도 한다(Blaydes and Paik, 2016).

하지만 중세에 일어난 여러 십자군 전쟁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고 역사적으로도 중요성이 높은 전쟁은, 바로 성지 십자군 전쟁이다. 실제로 역사학계에서도 ‘십자군(Crusades)’이라는 용어는 성지 십자군 전쟁을 가리키며, 이외의 다른 십자군 전쟁은 북방 십자군, 니코폴리스 십자군 등의 수식어를 붙여 표기한다(Latham, 2011). 이러

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십자군’이라는 용어 역시 성지 십자군을 지칭함을 밝혀 둔다.

십자군 전쟁은 1096년 시작되었다. 셀주크 제국(Seljuk Empire)의 위협에 처한 동로마 황제 알렉시오스 1세(Alexios I Komnenos)의 군사적 지원 요청을 받은 교황 우르바누스 2세(Urbanus II)가 1095년 11월 27일 프랑스 중부의 클레르몽에서 이교도의 손에 떨어진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호응한 서유럽 각지의 영주와 기사들이 이듬해 동로마 제국으로 향하던 동로마의 군사적 지원을 받으며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함으로써 제1차 십자군 전쟁의 막이 올랐다. 제1차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십자군 병력은 애초에 예루살렘 탈환이 아닌 아나톨리아반도 수복을 노렸던 동로마 측의 미온적인 지원과 길어진 보급선, 무슬림 토호들의 저항 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희생을 치르며 심지어는 가축의 분변에 섞여 나온 곡물 낱알이나 전사자의 시체를 먹을 정도로 악전고투하기도 했으나, 각지의 무슬림 토호와 군사 지휘관을 상대로 승리를 이어간 끝에 1099년 7월 예루살렘 점령에 성공한 뒤 예루살렘 왕국, 안티오키아 공국, 트리폴리 백국, 에데사 백국이라는 4개의 십자군 국가를 건국하는 데 성공했다(Frankopan, 2012, 이중인 역, 2018).

제1차 십자군 전쟁의 성공으로 그리스도교 세계는 성지 및 그 주변의 레반트 해안지대의 영토 등을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탈환할 수 있었지만, 십자군 국가들은 유럽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난점, 교황청이나 동로마 황실과의 갈등, 십자군 국가 건국 직후 지도자들이 벌인 대외 원정의 실패, 장기 왕조(Zangiyūn)나 아이유브 왕조 등의 강력한 이슬람 왕조 등장 등과 같은 악조건 속에서 위기에 빠지거나 몰락해 갔다. 1150년에는 에데사 백국이 장기 왕조에 의해 멸망했고, 1187년에는 아이유브 왕조가 예루살렘 왕국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도교 세계는 예루살렘과 십자군 국가를 수호·탈환하기 위해 2·9차 십자군 전쟁을 이어 갔다. 하지만 1차 때와 달리 이들 십자군 전쟁은 목표를 온전히 달성하지 못했다. 이미 이슬람 세력이 십자군에 맞서 단결해 있었고, 여러 군주와 제후, 기사들의 연합체 성격이 강했던 십자군의 한계도 무시하기 어려웠다. 일례로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의 주요 강국이 참전한 제3차 십자군 전쟁에서는 가장 많은 병력을 동원했던 신성 로마 제국이 이동 중 프리드리히 1세 바르바로사(Friedrich

I Barbarossa)가 급서하면서 이탈하는 바람에 전력이 크게 약화하는 위기를 겪었고, 결국 예루살렘 탈환에 실패했다(김능우·박용진 편역, 2020). 심지어 아이유브 왕조의 중심지인 이집트를 공략하기 위해 시작된 제4차 십자군 전쟁(1202-1204)은, 동로마로부터 지중해의 해상권을 빼앗으려는 베네치아의 회유에 넘어간 십자군 병력이 콘스탄티노플을 공략하여 함락하는 바람에 동로마 제국이 분열하여 와해하는 결과를 낳기까지 하였다. 1291년 마지막 남은 십자군 국가인 예루살렘 왕국이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에 멸망하면서, 십자군 전쟁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십자군 전쟁은 그저 종교적 맹신이나 불관용이 낳은 살육이나 비극, 침략전쟁 정도로만 여겨서는 곤란하다. 십자군 전쟁은 유럽과 이슬람 세계의 지형학적 질서와 역사지리적 판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 역사적으로는 물론 지리적으로도 중요성이 큰 사건이다. 우선 서유럽에서는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인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가 흔들렸고,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봉건 제후와 기사들이 전사하거나 전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몰락하면서 교회와 봉건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세 사회가 르네상스, 근대 사회로 전환해 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Seibt, 1987, 차용구 역, 2013; 김능우·박용진 편역, 2020). 십자군 국가의 출현과 이에 따른 성지순례의 재개는 서로마의 멸망과 이슬람 왕조의 대두로 인해 위축된 유럽인의 지중해 무역이 다시 활발해짐에 따라, 도시상공업자의 대두에 따른 유럽 봉건제의 몰락과 근세·근대로의 이행이 촉진되었고 한편으로 지중해 대신 동유럽과 흑해를 경유하는 무역로를 통해 번성하던 키예프 루스(Kievan Rus')가 몰락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하였다(Blaydes and Paik, 2016; 이동민, 2022a). 십자군 전쟁 과정에서 동로마는 사실상 재기불능 상태까지 몰락했고, 이는 훗날 오스만 제국이 아나톨리아반도와 발칸반도를 지배하면서 이 지역이 이슬람 문화권에 포섭되거나 이슬람교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으로 변모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Davies and Davis, 2007; Çelik, 2010). 아울러 2백 년에 걸친 십자군 전쟁은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 간의 적개심이 눈에 띄게 깊어지는 중요한 계기였고, 이는 오늘날 유럽 및 서구 세계와 이슬람 문화권 간의 대립과 갈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Maalouf, 1983, 김미선 역, 2002; Megoran, 2010).

2. 다중스케일적 접근

다중스케일적 접근이란 지리적 현상이나 연구주제를 특정한 한 가지 스케일을 넘어, 도시, 촌락, 지역, 국가, 국외, 문화권, 대륙, 글로벌 등 다양한 스케일에 존재하는 요인과 행위자의 중층적, 또는 수평적 상호관련성이란 관점에서 접근하는 지리학적 관점을 말한다(박배균, 2012; 한주성, 2018; 이동민, 2022a). 지리적 현상을 국가, 대륙 등 특정한 단일 스케일에 고착하는 대신 다양한 스케일의 요인과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간주하는 다중스케일적 접근은, 지리학에서 스케일이 지표 공간을 인식하고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지리학 연구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특정한 한 가지 스케일을 벗어나 다양한 스케일의 관점에서 지리적 연구주체에 접근함으로써, 스케일의 한계를 보완하고 더욱 폭넓고 심층적인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Brenner, 2001; 박배균, 2012). 더욱이 세계화로 인해 국경을 비롯한 지리적 경계의 유형이 유연해지고 다양해지는 한편으로 경제 지위권 스케일 간의 이동과 교류가 자유로워짐에 따라, 다중스케일의 지리학적 의미는 더한층 주목받고 있다(Park, 2005; Laine, 2016; 한주성, 2018).

예를 들어 황진태·박배균(2014)과 박배균·최영진(2014)은 구미 국가산업단지, 마산 수출자유지역의 입지 선정이 단순히 수출지향적 산업화를 추진하던 대한민국 정부(국가 스케일 행위자)의 의도에 따른 결과를 넘어, 지역 유지라든가 지역사회 출신의 정치인 및 해당 지역 인근 도시의 인프라 등 지방 스케일의 요인과 행위자, 1980년대까지 한국 경제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던 재일 한국인이라든가 일제강점기에 실시된 산업화의 유산 등 국제·글로벌 스케일의 행위자 등 다양한 스케일의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며 생산된 결과물임을 밝힌 바 있다. Barrett(2013)은 전 지구에 걸친 문제인 동시에 그 원인과 전파 과정, 영향력 등에서 지리적인 편차를 보이기도 하는 특성을 갖는 기후정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다중스케일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이동민 등(2016)은 다중스케일적 접근에 바탕을 둔 지리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도시 공간을 특정 스케일에 고착된 경관이나 이미지에 국한한 편향되거나 왜곡된 이해가 아닌, 다양한 경관과 공간 구조가 혼재하는 공간으로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게도 하였다. 이처럼 다중스케일적 접근은

지리적·공간적 스케일에 대해 새롭고 다각적이며 비판적인 인식론을 제공함으로써, 오늘날 지리학은 물론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Brenner, 2001; 황진태·전원근, 2020).

물론 국가 등 특정 스케일에 매몰된 지리적 인식론의 한계에 대한 대안이라는 성격을 가진 다중스케일적 접근에도 문제점이나 한계는 존재한다. 일례로 다중스케일 연구의 근간인 스케일을 어떤 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연구와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Wheatley and Johnson, 2009). 게다가 다중스케일적 접근은 1980년대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 신지역지리학의 대두와 관계가 깊으며, 본격적인 연구는 1990년대~200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비교적 역사가 짧은 담론이기도 하다(한주성, 2018; Hassink *et al.*, 2019). 게다가 다중스케일적 접근은 다양한 스케일의 관련성이라는 주제를 다루기에 적합한 방법이지, 그렇지 않은 주제를 다루는 데에도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다중스케일적 접근은 보편타당한 지리학 연구방법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스케일의 상호의존성과 관련성에 초점을 맞춘 최신 담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하지만 이 같은 한계 때문에 다중스케일적 접근이 무의미하다거나 지리학 연구의 방법론으로써 결합이 많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다중스케일적 접근은 공간적 스케일 및 스케일 간의 연결성과 관련성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지리학 연구의 발전과 지평 확대에 의미 있게 이바지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다중스케일적 접근은 앞서 살펴본 몇 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들어 지리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과 스케일을 다루는 지리학 이외의 분야에서도 주목받고 있다(Wheatley and Johnson, 2009; Xiang, 2013; Hassink *et al.*, 2019; Henry *et al.*, 2019).⁵⁾

3. 제1차 십자군 전쟁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접근의 필요성

전쟁사는 지리적 속성이 매우 강한 분야일 뿐만 아니라, 다중스케일적 접근을 적용할 필요성 또한 크다. 이는 전쟁의 속성과도 밀접하게 관계된다. 전쟁은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의 정치적·지정학적 요인이 결부되어 일어나며, 전쟁의 과정은 다양한 인문·자연지리적 요인과

밀접하게 결부되고, 전쟁의 결과는 국경, 정치체제, 지정학적 질서 등을 재편하며 지정학적 스케일의 재편을 초래한다(Keegan, 1993, 유병진 역, 2018; Gat, 2006, 오수은·이재만 역, 2017; 이애진·박지훈, 2016; 최성재 등, 2016; 이동민, 2022b). 이를테면 러일 전쟁은 19세기 영국과 제정 러시아의 패권 다툼인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글로벌 스케일), 한반도를 둘러싼 일본과 제정 러시아의 대립과 갈등(한반도-동아시아 스케일), 필리핀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었던 미국의 사정(동남아시아-태평양 스케일), 국토의 중심이 매우 깊고 해안선이 분단된 데다 유럽 방면의 전선에 주력군을 배치할 수밖에 없었던 제정 러시아의 사정(러시아 스케일) 등 다양한 스케일의 요인과 행위자 간의 정치적·지정학적·군사지리적 관계 속에서 일어났으며, 그 결과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 좌절(글로벌-태평양 스케일), 일본의 조선 침탈 및 미국의 필리핀 점유 승인(동아시아 스케일) 등과 같은 지정학적 스케일의 재편이 일어났다(Venier, 2004; Kowner, 2006; Minohara, 2016). 제1차 세계대전 또한 제국주의 시대 서구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 및 러일 전쟁에 따른 세계 지정학 질서의 재편(글로벌 스케일), 독일제국 황제 빌헬름 2세의 팽창 정책에 따른 유럽의 지정학적 질서 재편과 삼국동맹-삼국협상 간의 갈등(유럽 스케일), 발칸반도를 둘러싼 제정 러시아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간의 대립(유럽-발칸반도 스케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세르비아 왕국, 그리고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령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거주하던 세르비아계 간의 민족적 갈등(발칸반도 스케일) 등 다양한 스케일의 요인과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발했고, 그 결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제정 러시아, 오스만 제국의 해체 및 이에 따른 다수의 신생국 독립, 제국주의 식민지의 재편, 공산국가의 등장 등과 같은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지정학적 질서 재편이 이루어졌다(Venier, 2004; Rüger, 2007; Clark, 2012, 이재만 역, 2019; Gerwarth, 2016, 최파일 역, 2018).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우크라이나의 역사지리적 영역 분화(동유럽-우크라이나 스케일), 19세기 이후 우크라이나의 산업화·도시화(구소련/러시아-우크라이나 스케일), 우크라이나의 독립 이후 혼란(우크라이나 스케일), 푸틴 정권의 지정학적 전략(글로벌 스케일), 냉전 종식 이후의 지정학적 변화(글로벌-우크라이나 스케일) 등 다양한 스케일의 요인과 행위자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이동민, 2022a).

이처럼 전쟁과 전쟁사는 단순히 국가 스케일 간의 무력 충돌을 넘어, 지역, 지정학적·군사지리적 요지, 민족 집단의 지리적 분포, 대륙이나 글로벌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지정학적·군사지리적 대립이나 갈등 등과 같은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요인과 행위자, 그리고 스케일 간의 상호작용이나 스케일의 변화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쟁사를 다중스케일적 접근을 통해 재해석할 필요성은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십자군 전쟁 또한 예외가 아니다. 십자군 전쟁은 중세 서구 세계의 사실상 전체가 연관된 전쟁이기 때문에, 더욱더 다중스케일적 접근을 통한 재해석이 요청된다. 이러한 점에서 제1차 십자군 전쟁은 단순히 그리스도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 간의 종교전쟁(Maalouf, 1983, 김미선 역, 2002), 또는 단합한 십자군이 지정학적으로 분열한 이슬람 세계의 군대를 격파하고 십자군 국가를 세운 전쟁(Frankopan, 2012, 이종인 역, 2018; 홍용진, 2014; 김능우·박용진 편역, 2020)과 같은 수준을 넘어, 서유럽, 동로마 제국, 이슬람 세계 등 다양한 스케일 간의 상호작용 및 관련성에 착안한 다중스케일적 접근을 통해 재해석되고 이해될 필요가 있다.

III. 연구 계획

본 연구는 다중스케일적 접근과 문헌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는 역사나 역사지리 주제를 다중스케일적 접근을 통해 재해석한 선행연구(황진태·전원근, 2020; 이동민, 2022a)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제1차 십자군 전쟁의 발발 배경을 지리적 관점에서 재해석할 틀인 스케일을, 서유럽, 동로마 제국, 이슬람 세력, 그리고 성지 예루살렘이라는 4개의 스케일로 나누어 보았다. 왜냐하면 서유럽은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주체이고, 동로마 제국은 우르바누스 2세에게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여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명분을 제공한 주체이며, 이슬람 세력은 십자군과 적대했던 주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성지 예루살렘은 십자군 전쟁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십자군 전쟁 과정에서 지정학적·역사지리적 변화가 크게 일어난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 4개를 제1차 십자군 전쟁의 발발 배경과 관련된 주요 지리적 스케일로 선정하

였다.

물론 이 4개의 스케일은 예루살렘을 제외하면 규모나 위계가 비슷한 스케일이기 때문에, 다양한 스케일 간의 중층적 관련성과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다중스케일적 접근의 특징 및 연구 동향(박배균, 2012; 박배균·최영진, 2014; 황진태·박배균, 2014)에 맞지 않아 보이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다중스케일적 접근의 핵심은 어떠한 현상을 특정한 스케일에 국한해서 살피는 대신, 다양한 스케일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데 있다(박배균, 2012; 이동민 등, 2016). 다중스케일적 접근이 스케일의 중층성이나 위계성을 반드시 전제하는 것도 아니다(Bruslé, 2013; 한주성, 2018). 실제로 브라질, 페루, 볼리비아라는 유사한 층위의 스케일 간의 국경 형성과정을 다중스케일적 접근을 통해 분석한 Bruslé(2013)의 연구와 같은 사례도 있다. 게다가 후술하겠지만 서유럽과 동로마는 성지 예루살렘을 장악 및 봉쇄한 이슬람 세력에 대항한 그리스도교 세력이라는 점에서 공통된 스케일로도 분류할 수 있지만, 이들은 엄연히 다른 스케일로 분류되어야 하며 이것이 십자군 전쟁을 단순히 그리스도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충돌 정도로 바라보아서는 곤란한 이유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위 문단에서 제시한 4개의 스케일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4개의 지리적 스케일을 바탕으로 제1차 십자군 전쟁과 관련된 문헌분석을 실시하여, 이와 중요하게 연관되는 스케일별 요인과 행위자들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제1차 십자군 전쟁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재해석과 논의를 제시한다.

IV. 제1차 십자군과 관련된 스케일별 주요 요인과 행위자

1. 서유럽 스케일

1) 봉건혁명이 불러온 서유럽의 번영과 모순

서양 중세는 흔히 '암흑시대'라 일컬어지지만, 실제로는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며 번영했던 시대였다. 물론 6-7세기까지 서유럽은 소비하기의 지속, 게르만족 국가들의 난립과 분쟁 등으로 인해 인구까지 감소하는 혼란상을 겪었다. 하지만 프랑크 제국의 카롤루스 대제(Carolus Magnus)가 서유럽의 상당 부분을 통일한 8세기 이후, 5

백 년 동안 이어진 중세 온난기를 맞이한 서유럽은 카롤루스 대제가 수립한 봉건제의 질서를 바탕으로 번영을 이어 갔다(Abels, 2009; Fagan, 2009). 제후들이 강력한 권한과 권력을 갖는 봉건제이지만 그 덕분에 서유럽은 되려 권력이 분산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종교적·이념적 동질성 아래 프랑크 제국이 9세기 중반 해체된 뒤에도 정치적 안정을 누릴 수 있었고, 이와 더불어 양성과 유지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중장기병을 효율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군사력 강화도 실현할 수 있었다(Gat, 2006, 오은숙·이재만 역, 2017; Blaydes and Chaney, 2013). 11세기 서유럽은 봉건제가 확립된 가운데 농업 생산성이 많이 증가했고, 이에 따른 경제적 풍요 속에서 인구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를 봉건혁명(Feudal Revolution)이라고 지칭한다(Abels, 2009; Blaydes and Chaney, 2011; 2013).

하지만 봉건혁명기 서유럽에는 무시하기 어려운 경제적·사회적 모순도 자라났다. 우선 인구가 증가하고 봉건제, 나아가 장자 상속제가 확립되면서, 귀족층 사이의 경쟁과 대립이 치열해졌다. 인구가 증가하고 평화가 도래했는데 땅이 늘어나지는 않으니, 영지를 상속받지 못한 채 도태되는 귀족이 생겨난 것이다. 이 때문에 봉건혁명이 도래한 서유럽에서는 국가 간의 대규모 전쟁은 적었지만, 영지 계승권을 둘러싼 소규모의 분쟁이나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졌다(Howard, 2009; Urban, 2015). 서열상 영지의 상속권을 갖지 못하거나 상속권 다툼에서 밀려난 귀족들은 어린 시절부터 받아온 기사 교육을 통해 기른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용병 생활을 하거나, 심지어는 폐강도로 전락하기까지 했다(Hanawalt, 1975; Urban, 2015). 일례로 제1차 십자군 전쟁을 통해 안티오키아 공국을 수립하고 보에몽 1세(Bohémond I)로 즉위하게 되는 보에몽 드 타랑트(Bohémond de Tarente)는, 시칠리아와 이탈리아 남부를 정복한 노르만인 정복자 로베르 기스카르(Robert Guiscard)의 장남이었던 데다 젊은 시절부터 매우 유능한 기사로 인정받은 인물이었지만, 아버지 사후 이복동생들과의 상속 경쟁에서 패하여 영지와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는 바람에 제1차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허송세월해야 할 정도였다(Frankopan, 2012, 이종인 역, 2018). 그뿐만이 아니었다. 예루살렘 왕국을 건국한 고트프루아 드 부용(Godefroid de Bouillon)은 신성 로마 제국의 로렌 공작이기는 했지만, 신성 로마 황제 하인리히 4세(Heinrich IV)가 그의 영지를 탐내는

바람에 정당한 상속권을 가진 영지를 제때 상속받지 못했던 경험을 가진 이였다.

즉, 서유럽 각국의 군주와 유력 제후들이 주도한 제2차 이후의 십자군 전쟁과 달리, 제1차 십자군 전쟁은 보에몽, 고트프루아 등 영지 상속을 둘러싼 경쟁에서 패하거나 문제를 빚은 이들의 비중이 컸다는 특징을 가진다(Latham, 2011; Frankopan, 2012, 이종인 역, 2018). 이러한 특징은, 제1차 십자군 전쟁은 봉건제와 장자 상속제가 확립되고 인구가 눈에 띄게 증가해 가던 가운데 몰락 귀족층이 생겨나던 11세기 후반 서유럽의 현실 속에서 그런 이들이 제1차 십자군 전쟁의 발발과 관련된 서유럽 스케일의 중요한 행위자로 작용했음을 의미한다.⁶⁾ 실제로 제1차 십자군 전쟁에는 이처럼 봉건혁명의 번영과 모순 속에서 토지를 확보하려던 서유럽 봉건제후와 기사들의 식민지 확보를 위한 전쟁이라는 성격을 가진다는 논의도 있다(Latham, 2011).

2) 로마 가톨릭 교회의 종교적 권위와 정치적·교리적 위기

한편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외적으로는 서유럽의 정치와 사회, 문화를 지배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중대한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로마 가톨릭 교회를 정치적으로 보호할 프랑크 제국은 카롤루스 대제 사후 장자 상속권이 확립되지 못한 가운데 상속권 문제로 분열했으며, 그 계승자 격인 신성 로마 제국은 왕권 강화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황제와 제후들 간의 알력이 불거져 있는 상태였다. 프리드리히 1세 바르바로사를 위시한 신성 로마 황제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보호자라는 정치적 명분을 확실히 다지기 위해 내정에 집중하는 대신 무리한 이탈리아 원정을 이어 가는 가운데, 봉건제후 세력이 대두하여 황제와 대립하는 구도가 빚어진 결과였다(Latham, 2011). 물론 교황은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 중부에 교황령이라는 제법 넓은 영토를 갖고 있었지만, 교황령의 실력만으로 교회의 권위 실추나 부패, 타락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는 데는 한계가 뚜렷했다.

정치적 기반이 불안정한 가운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군주나 제후 등 가톨릭 교리상 평신도에 불과한 이들이 성직자를 임명하는가 하면 성직자들이 성직 매매를 일삼는 등의 위기에 직면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로마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Gregorius VII)는 성직 매매와 평신도의 성직자 서임, 성직자의 결혼을 엄금하는 등 대대

적인 교회 개혁을 추진하여 로마 가톨릭 교회 내부의 부패 척결과 교황권의 강화, 교회의 결속을 시도했다. 그레고리우스 7세의 개혁은 이후 이어지는 교회법의 체계화에 의미 있게 이바지했을 뿐만 아니라, 사후 그가 가톨릭 교회의 성인으로 시성 되도록 만들기도 했다(장준철, 2021). 하지만 그레고리우스 7세의 개혁은, 신성 로마 제국의 왕권 강화를 시도하던 하인리히 4세 세력의 도전에 직면했다. 그레고리우스 7세는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여 반 하인리히 4세 성향의 제후들과 성직자들을 규합한 뒤 일시적으로 하인리히 4세를 굴복(카노사의 굴욕, 1077) 시키기도 했지만, 1084년 하인리히 4세의 침공을 받아 로베르 기스카르의 영지로 망명한 뒤 이듬해 그곳에서 객사하고 말았다.⁷⁾

이처럼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여러 문제에 봉착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대폭 축소되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 군주와 제후들이 겉으로는 독실한 신앙심을 유지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정치적·경제적 권력을 이용해 교회의 권위에 도전했다고는 하지만, 중세 서유럽의 정신적 헤게모니는 여전히 로마 가톨릭 교회에 있었다. 비록 중국에는 하인리히 4세의 공격을 받아 교황령에서 쫓겨난 뒤 객사했다지만, 그레고리우스 7세가 카노사의 굴욕에서 하인리히 4세를 파문하여 그를 일시 굴복케 했음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교황의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이 절대적이지는 못했는지언정 매우 강했음을 보여 준다(장준철, 2021). 비록 교회나 교황의 힘만으로 유럽의 군주나 제후들을 절대복종케 할 수는 없었지만, 서유럽 세계에서 교회나 교황의 권위는 유럽의 정치와 사회 전반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중세 서유럽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들을 지켜줄 프랑크 제국의 해체와 신성 로마 제국의 혼란 속에서 부정부패와 이단 종파의 등장, 성직자의 부패와 타락 등의 문제에 시달리는 한편으로, 서유럽 세계를 정신적·이념적으로 지배할 힘을 여전히 갖고 있었다. 즉,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들의 종교적·이념적 힘을 활용하여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권위, 권력에 도전하는 군주나 봉건제후 세력에 대응할 필요에 직면했던 셈이다. 이 같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정은 '신이 (전쟁을)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Deus Vult'라는 모토가 제1차 십자군의 결성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이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2. 동로마 제국 스케일

1) 동로마 제국의 지정학적 취약성과 이에 따른 11세기의 위기

로마 제국 후기에 이미 로마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동로마 제국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에도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하며 로마를 계승했다. 특히 유스티니아누스 대제(Justinian the Great) 재위기(527-565)에 동로마는 대대적인 대외 원정을 통해 옛 로마 영토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기까지 했다. 동로마는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무역로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이윤을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정예 용병대를 고용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고대 그리스·로마의 우수한 문물을 계승·발전한 동로마는 서유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문화 수준을 자랑하는 선진국이었다(Ostrogorsky, 2006, 한정숙·김경연 역, 2014; Frankopan, 2012, 이종인 역, 2018).

중세 유럽 최강국이자 최선진국인 동로마였지만,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사후 동로마는 계속된 악재에 시달리며 영토를 잠식당하고 내부적인 모순과 위기에 시달렸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동로마의 지정학적 환경이 그러한 위기를 불러온 측면도 다분했다. 동로마는 영토가 광대하기도 했지만 국경선이 길었고, 긴 국경선의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서유럽, 남동쪽으로는 페르시아, 북동쪽의 발칸산맥 너머로는 스텝 지대가 발달하여 불가르인, 페체네그인 등의 기마 유목민이 활동하기에 유리한 영역(오늘날 불가리아, 루마니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등지)과 인접했다. 이들은 모두 동로마로서도 무시하기 어려운 강적이었고, 그러다 보니 동로마는 강력한 군사력을 어느 한 전선이나 전역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동로마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은 발칸산맥과 보스포루스해협이라는 천연 장애물, 그리고 테오도시우스 2세(Theodosius II) 재위기(408-450)에 완공된 3중 성벽에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였지만, 광대한 동로마의 변경이 이처럼 방어에 유리한 환경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사산조 페르시아와 오랫동안 소모전을 이어 가던 동로마는 7세기 말-8세기 초반에 걸쳐 우마이야 왕조에 북아프리카와 예루살렘, 레반트를 잇는 광대한 영토를 빼앗겼고, 9-11세기에 걸쳐 불가리아 제국과 페체네그인은 발칸산맥 너머의 영토를 잠식했다. 지중해 영토 역시 이슬람 세력, 서유럽과의 각축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11

세기 중반에는 로베르 기스카르가 그러한 갈등 구도를 이용하여 시칠리아와 이탈리아 남부 영토를 정복한 뒤, 심지어 동로마를 정복하여 동로마 제위를 찬탈할 시도까지 할 정도였다(Loud 2013; Ostrogorsky, 2006, 한정숙·김경연 역, 2014).⁸⁾ 계속되는 외침과 영토의 상실은 당연히 동로마의 국력 약화로 이어졌고, 동로마 제국은 사방의 적과 인접한 국토를 방어할 역량을 잃어 갔다.

2) 아나톨리아반도의 상실에 따른 동로마 제국의 지정학적 대위기

1071년 동로마군은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셀주크 제국군에게 참패했고, 이를 계기로 11세기 후반 동로마는 아나톨리아반도의 대부분을 상실하게 된다. 문제는 아나톨리아반도의 지정학적·경제지리적 입지조건이었다. 동로마 치지에서 아나톨리아반도의 상실은 영토나 국력의 축소를 넘어, 국가의 존망에 치명타를 가할 중차대한 위기였다.

아나톨리아반도는 고대부터 농업 생산성이 풍부한 데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수많은 문명이 번성했고 이곳을 노리기 위한 전쟁도 여러 차

레 일어난 지역이었다(Marro, 2010). 동로마가 서로마 멸망 후에도 천 년 가량 지속하며 유럽의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비결에는, 이 같은 아나톨리아반도의 지리적 특징도 포함되어 있었다(Lightfoot, 2007). 그뿐만이 아니었다. 동로마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은 아나톨리아반도 북서쪽의 보스포루스해협 바로 건너편에 입지한다. 아무리 콘스탄티노플이 바다와 산지에 둘러싸인 방어에 매우 유리한 지형을 가진 데다 난공불락의 삼중 성벽으로 요새화되었다고는 하나, 적국의 영토가 수도에 인접한다면 동로마는 수도를 잃고 국가 존망의 위기에 빠질 위험성이 다분했다.

이러한 문제를 더욱 키운 것은 동로마 제국 해군의 쇠퇴였다. 본래 동로마 제국은 중앙집권 체제를 바탕으로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며 동지중해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얻던 해상강국이었으나, 11세기의 위기 상황과 더불어 해군력은 육군력보다도 훨씬 심각할 정도로 쇠퇴했고 이 때문에 동로마 제국은 로베르 기스카르 세력의 침입을 막기 위해 신흥 해상강국 베네치아 공화국과 동맹을 맺어야 할 정도였다(Ostrogorsky, 2006, 한정숙·김경연 역, 2014). 콘스탄티노플은 해안에 자리잡고 있는데,



그림 1. 1090년 무렵 동로마 제국의 영역

출처 : World History Encyclopedia 웹사이트, 'The Byzantine Empire c. 1090 CE' 항목(본 자료의 저작권은 공용 도메인(public domain)에 해당하며, 출처 웹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내용 일부 재구성).

주 : 지도에서 니카이아를 비롯한 아나톨리아반도 일대(점선 서쪽)은 룸 술탄국의 영역이며, 해당 색으로 표시된 영역 전체는 명목상 셀주크 제국의 영토였음. 두클라 왕국은 동로마 제국의 속국이고, 노르만 영토는 1130년 시칠리아 왕국이 건설되기 전 로베르 기스카르의 후손들이 공국, 백국 등의 형태로 지배했던 영역임.

아나톨리아반도를 잃은 데다 해군력까지 약체화된 상황이니 아무리 방어에 유리한 지형에 입지한 견고한 요새 도시라 한들 적군의 침공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아나톨리아반도의 수복은 11세기 후반 동로마의 지상 과제로 부상할 수밖에 없었다. 아나톨리아반도를 수복하지 못한다면 경제적·사회적 중심지를 잃은 동로마가 부흥할 힘을 잃음은 물론, 지정학적·군사 지리적 완충지를 잃은 콘스탄티노플이 적의 공격을 받거나 함락당하며 제국의 존속 자체가 힘들어질 위험성까지 컸기 때문이다.

3) 서유럽과의 종교적 동질성과 이질성: 경쟁자 이자 형제

11세기 동로마 제국은 사실상 서유럽과는 뿌리는 같되 교리가 상이한 종교가 지배하는 영역이었다. 이미 7-8세기부터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교황과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좌를 중심으로 하는 동로마 제국 간의 반목과 대립이 불거지며 분열해 가던 그리스도교 교회는, 1054년 로마 교황청과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상호 파문하는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분열했다(Frazer, 2007). 서유럽과 동로마 제국은 종교적으로는 물론 정치·사회적으로도 이질적인 부분이 컸다. 봉건제 사회였던 서유럽과 달리 동로마 제국은 중앙집권 체제였고, 서유럽에 비해 동로마 제국은 그리스어와 문자를 사용하는 등 고대 그리스 문화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및 지리적 연결성도 강했다(Ostrogorsky, 2006, 한정숙·김경연 역, 2014). 심지어 이들은 전쟁에 대한 관점까지도 상이했다. 성지 예루살렘은 물론 발트해 연안 등지에서도 종교적 신념을 명분 삼아 십자군 전쟁, 즉 성전을 벌였던 서유럽과 달리, 동로마는 전쟁을 종교와 분리해서 접근하는 전쟁관과 군사교리를 갖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하드, 즉 이슬람교의 성전을 신성시하는 이슬람 세계를 경멸하는 풍조까지 갖고 있었다(Stouraitis, 2011).⁹⁾

그런데 11세기 동로마 제국의 위기와 이에 따른 국력의 약체화, 특히 아나톨리아반도 상실은 동로마 제국이 외부의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환경을 조성했다. 비록 알렉시오스 1세가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위기에 몰린 제국의 국력을 상당 부분 회복했다고는 하나, 이미 영토도 국력도 현저히 줄어든 상황 속에서 동로마 제국의 힘만으로 아나톨리아반도를 되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알렉시오스 1세는 로마 교황청, 즉

서유럽의 로마 가톨릭 세력에 도움을 청한 것이다. 비록 상호 파문하며 서로 다른 교파로 분열했다고는 하나, 로마 가톨릭과 동로마 제국의 정교회와는 엄연히 그리스도교 교파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단의 등장이라는 문제에 몸살을 앓았다고는 하나, 셀주크 제국이 아나톨리아반도를 넘어 서유럽을 위협할 수 있는 마당에 동서 교회의 분열이 문제시되지는 않았다. 이는 오히려 서유럽 스케일의 로마 가톨릭 교회 관련 요인·행위자와 맞물려,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성전을 호소함으로써 제1차 십자군이 결성되는 계기로까지 이어졌다.

물론 동로마 제국 스케일에서 제1차 십자군은 어디까지나 아나톨리아 수복을 위한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지원이었지, 성지 예루살렘 수복을 위해 국력을 소모해 가며 함께 싸워야 할 ‘성전사(聖戰士)’ 집단이 아니었다. 제1차 십자군 전쟁에 대한 이 같은 이해관계와 이념적·종교적 관점의 차이는, 제1차 십자군이 아나톨리아반도를 넘어 레반트 방면으로 진격할 무렵부터 동로마 제국이 이들에 대한 지원을 등한시함에 따라 십자군이 병력 충원 및 식량·물자 보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고전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도 풀이할 수 있다(Stouraitis, 2011; Frankopan, 2012, 이종인 역, 2018).

3. 이슬람 세력 스케일

1) 튀르크족 왕조 셀주크 제국의 대두에 따른 이슬람 세계의 영역 변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이슬람 문화를 창달했던 아바스 왕조는, 왕조와 종교의 수장을 겸하는 이슬람교의 보편 군주인 칼리파가 임명한 각지의 지방 총독이나 군사령관들이 군벌화·토호화되면서 9세기 이후 분열·쇠퇴를 거듭했다(Latham, 2011).¹⁰⁾ 칼리파가 유명무실해지자 이슬람 세계에서는 각지의 지방정권과 왕조가 난립했고, 그 와중에 수니파 계통의 아바스 왕조 치하에서 소수파 내지는 이단 취급을 받던 시아파 이슬람교도들은 909년 이집트를 근거지로 하며 독자적인 칼리파를 내세운 파티마 왕조(Fatimid Caliphate)를 세웠다.

이 같은 이슬람 세계의 분열은 이슬람 세계는, 11세기 중반 아랍인이 아닌 튀르크인에 의해 일단락된다. 1055년 셀주크 제국의 창건자 토그릴 베그(Toghril Beg)가 아

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에 입성한 뒤 칼리파로부터 술탄¹¹⁾ 칭호를 받아 투으를 1세(Tuğrul I)로 즉위했다. 튀르크족은 이전부터 아바스 왕조의 용병으로 활동하며 이슬람 세계에 유입되어 오고 있었지만, 셀주크 제국의 대두는 아랍인이 아닌 튀르크인이 이슬람 세계를 대표하는 국가를 세운 첫 사례였다. 셀주크 제국은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동로마 제국군을 대파하며 아나톨리아반도 대부분을 지배하는 데 성공하는가 하면 파티마 왕조로부터 레반트를 빼앗는 등, 대외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눈에 띄게 팽창했다.

문제는 셀주크 제국의 대두가 단순히 이슬람 세력의 왕조 교체, 또는 왕실이나 지배층을 이루는 민족집단의 교체 정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사실 이슬람 세력은 무함마드 생전부터 군사적인 정복 활동을 통해 영역을 팽창했던 것과는 별개로, 그리스도교 등 이교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용을 베풀었을까만 아니라 유럽의 그리스도교 세력과도 일정 부분 무역과 교류를 이어 갔다(Berger, 2014). 즉, 중세 서구의 그리스도교 세계와 아랍인이 주도한 이슬람 세계는 서로를 이단시·적대시하는 한편으로 나름대로 공존한 측면도 무시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셀주크 제국을 세운 튀르크인은 아랍인에 비해 그리스도교 세계와 공존한 경험이 부족했고, 이는 셀주크 제국이 아나톨리아반도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교도'를 상대로 학살, 약탈, 방화, 강간 등의 잔혹 행위를 저지르는 배경으로 작용했다(Frankopan, 2012, 이종인 역, 2018). 이는 셀주크 제국의 침공을 당한 당사자인 동로마 제국은 물론, 서유럽에까지 '야만적인 이교도 세력'에 그리스도교 세계가 침탈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과 그들에 대한 적개심이 커지는 결과를 낳았다(Latham, 2011; 김능우·박용진 편역, 2020).

2) 셀주크 제국과 이슬람 세계의 지정학적 분열

대외적으로 크게 팽창한 셀주크 제국이었지만, 훗날 등장한 또 다른 튀르크계 이슬람 왕조인 오스만 제국 등과 달리 셀주크 제국은 이슬람 세계를 장기간에 걸쳐 온전하게 통치한 통일 왕조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했다. 너무 빠른 팽창으로 인해 아나톨리아 등지를 온전히 이슬람 문화권으로 포섭하지 못한 와중에, 그리스도교를 신봉하는 토호들도 적지 않았다(Frankopan, 2012, 이종인 역, 2018; 김능우·박용진 편역, 2020). 일례로 제1차 십자군 전쟁 중이었던 1098년, 보예몽 1세, 고트프루아 등

과 더불어 십자군 병력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보두앵 드 불로뉴(Baudouin de Boulogne)는 정교회 신앙을 강요하던 현지 토호와 아르메니아 사도교회(Armenian Apostolic Church)¹²⁾를 신봉하던 주민 사이의 갈등을 이용하여 에데사 백작 보두앵 1세(Baudouin I)로 즉위함으로써, 십자군 국가의 하나인 에데사 백국을 세울 정도였다(Frankopan, 2012, 이종인 역, 2018).

1077년에는 셀주크 제국의 황족 쿠탈미쉬오글루 쉴레이만(Kutalmışoğlu Süleyman)이 쉴레이만 1세(Suleiman Shah I)를 칭하며 룸 술탄국(Sultanate of Rûm)으로 사실상 독립했다(Peacock, 2006).¹³⁾ 게다가 1090년대에는 후계자 문제 등이 불거지며 내전까지 일어났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파티마 왕조는 셀주크 제국에게 레반트를 빼앗기기는 했지만 근거지인 이집트를 확고히 장악하며 건재했고, 셀주크 제국의 분열을 틈타 레반트를 수복하기 위한 군사행동에 나서고 있었다. 1090년대 레반트는 셀주크 제국과 파티마 왕조 사이의 분쟁 지역이 되었고, 심지어 파티마 왕조는 1096년 예루살렘을 셀주크 제국으로부터 탈환하기까지 했다(김능우·박용진 편역, 2020).

이처럼 1090년대는 이슬람 세계 전체는 물론, 제1차 십자군 전쟁의 목표였던 예루살렘과 레반트 일대까지 분열과 항쟁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는 제1차 십자군 전쟁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대규모 침공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 실제로 제1차 십자군 병력이 레반트 진격 이후 동로마 제국의 소극적인 지원에 따른 병력 충원과 보급의 어려움, 고온 건조한 기후와 익숙하지 않은 지형지물 등의 난점에 직면하며 고전을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각지의 토호 세력을 격파 또는 포섭하며 예루살렘 수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데는, 이 같은 이슬람 세계의 분열이 자리잡고 있었다(Frankopan, 2012, 이종인 역, 2018; 김능우·박용진 편역, 2020).

4. 성지 예루살렘 스케일

1) 성지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과 부활·승천이 일어난 세 종교의 성지

예루살렘은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라는 세 종교가 다 같이 신성시하는 성지이다. 유대교 입장에서 예루살렘은 고대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던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신명기, 역대기 하 등 구약 전반에서

유대교의 신 야훼가 자신의 도읍과 성전이 입지할 장소로 언급한 최상위 성지이다(Goulder, 2004; 신성운, 2019). 이처럼 구약에서 예루살렘을 신성시한다는 사실은, 마찬가지로 구약을 종교 경전으로 중시하는 데다 종교의 형성 및 전파 과정이 예루살렘이 속한 레반트 일대와 밀접하게 관계되기까지 하는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역시 이곳을 성지로 여기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예루살렘은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의 경전인 신약에서도 성지로 언급되는 장소이다. 그리스도교의 중요 경전인 신약의 복음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그리고 바오로 서신 등은 예루살렘을 참된 교회가 선구적으로 세워질 장소이자 최후의 심판 이후 죄 사함과 구원의 장소라 언급한다(신성운, 2019).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뒤 부활한 장소 역시 예루살렘으로, 이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의 무덤이 있다고 알려져 왔다(Taylor, 1998). 이처럼 구약에 이어 신약까지도 성지로 언급한 데다 그리스도의 십자가형과 부활까지 이루어진 그리스도교의 성지 예루살렘은, 그리스도교 교리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종교 회의인 칼케돈 공의회(451)¹⁴⁾ 이후 수립된 5대 총대주교좌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Kötter, 2022).¹⁵⁾

이슬람교의 최고 경전인 꾸란은 예루살렘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신학 연구에 따르면 꾸란 역시 예루살렘을 종교적으로 중요한 장소로 신성시한다. 이를테면 꾸란은 천사 지브릴(Jibra'il)¹⁶⁾의 인도를 받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메카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의 예배당에서 먼저 기도를 올린 뒤에 메카로 이동하여 승천했다고 언급하는데, 여기서 메카 이전에 무함마드가 방문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이다(신성운, 2019). 게다가 이슬람교 역시 구약과 신약을 경전으로 중시함을 감안하면, 이슬람교 입장에서 예루살렘은 유대교나 그리스도교와 차이가 있을지언정 종교적으로 가볍지 않은 의미를 지니는 성지일 수밖에 없다.

2) 이슬람 세계의 지정학적 판도 변화와 예루살렘 및 레반트 해안지대의 지형

십자군 전쟁의 목표인 예루살렘은 이미 7세기에 이슬람 세력의 수중에 떨어졌다. 제1차 십자군 전쟁의 발발보다 400년 이상 앞서 일어난 일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교 세력이 성지 예루살렘을 완전히 상실함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등의 이슬람 왕조들은 그리스도교도의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일정 부분 허용했고, 심지어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교 순례자를 위한 그리스도교 예배당까지 있을 정도였다(Boas, 2001; 홍용진, 2014). 이는 서양 중세사에서 그리스도교도와 이슬람교 간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그리스도교 세력과 이슬람교 세력은 서로를 이교도로 적대시하며 전쟁을 이어 가는 한편으로, 서로 공존하며 교역이나 학술 교류 활동 등을 하기도 했다. 이는 후(後)우마이야 왕조를 비롯한 이슬람 세력과 그리스도교 제후국 및 왕국들이 각축전을 벌이던 이베리아반도, 지중해에서 그리스도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 간의 완충지 역할을 하던 시칠리아 등지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이런 가운데 이슬람 세력은 그리스도교도들이 예루살렘 순례 과정에서 쓴 돈 덕분에 제법 쓸쓸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셀주크 제국의 대두는 이 같은 예루살렘의 입지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아랍인 왕조인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등과 달리, 셀주크 제국을 세운 튀르크인 지배자들은 '이교도와의 공존'에 익숙하지 않았고 그것이 가져다줄 이익 역시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앞서 언급한, 만지케르트 전투 이후 아나톨리아반도 등지에서 셀주크 제국이 그리스도교도를 잔혹하게 학살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다. 셀주크 제국은 그리스도교도의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원천 봉쇄했다(Boas, 2001; 홍용진, 2014).

예루살렘 순례길이 막히자 그리스도교 세계는 큰 충격을 받았다. 성지순례는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에서 중요성이 큰 일이었고 예루살렘은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중요성이 높은 성지였기 때문이다. 이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Deus Vult'라는 구호 아래 십자군을 소집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Boas, 2001; 김능우·박용진 편역, 2020).

한편으로 예루살렘 및 십자군 국가가 들어선 레반트 해안지대의 지형은 산지와 구릉지가 발달했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사실 방어에 유리한 군사지리적 환경이다. 일례로 1260년 예루살렘 인근의 아인잘루트(Ayn Jalut)에서 일어난 아인잘루트 전투에서, 맘루크 왕조의 술탄 바이바르스(Al-Malik al-Zahir Rukn al-Din Baybars al-Bunduqdari)는 아인잘루트의 협곡 지대로 몽골 제국군을 유인한 뒤 매복 공격과 화포의 집중사격을 통해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Kiffer, 2019).¹⁷⁾ 즉, 예루살렘과 레반트 해안지대의 군사지리적 환경은 제1차 십자군에게 되려 불리한 측면이 다분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도 제1차 십자군은 원정 과정에서 보급 부족에 따른 기아에 시

달리며 악전고투를 이어갔고 병력 손실도 상당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이슬람 세계, 특히 예루살렘과 레반트 일대의 지형학적 분열은 이 같은 방어에 유리한 군사지리적 환경이 방어자인 이슬람 세계에 주는 이점을 상당 부분 상쇄한 측면이 적지 않다. 아울러 예루살렘과 레반트 일대의 이 같은 군사지리적 여건은 십자군 국가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대 200년까지 지속할 수 있는 여건으로 작용한 측면도 무시하기 어렵다. 십자군 국

가 가운데 에데사 백국이 가장 빨리 멸망한 까닭도, 다른 국가와 달리 특히 이슬람 세력과 인접한 영토의 동부와 남부 일대에 개방된 지형이 분포했다는 사실과 결코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제1차 십자군 전쟁 당시 셀주크 제국과 파티마 왕조의 각축전이 벌어지던 장소이었던 예루살렘과 레반트는, 시나이반도 너머의 파티마 왕조와 북쪽의 셀주크 제국 및 룸 술탄국, 그리고 아라비아반도의 무슬림 토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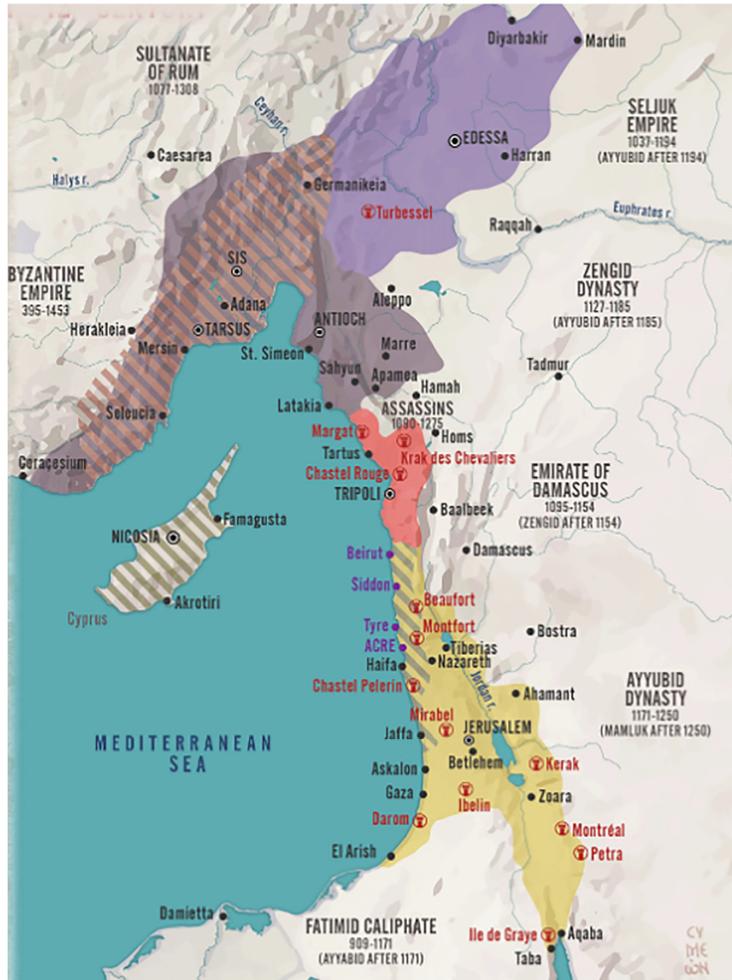


그림 2. 십자군 국가의 영역과 지형

출처 : World History Encyclopedia, 'The First Crusades and the 12th-Century Latin East(Outremer)' 웹페이지.

주 : 본 지도 자료는 비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자료이며, 출처 웹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보라색 영역이 에데사 백국, 회색 영역이 안티오키아 공국, 주황색 영역이 트리폴리 백국, 황색 영역이 예루살렘 왕국임. 회색 빗금은 제3차 십자군 전쟁 과정에서 수립된 십자군 국가인 키프로스 왕국(1192-1489), 회색 바탕 위의 분홍색 빗금은 동로마 제국이 반기를 든 아르메니아계 이주민이 세운 킬리키아 아르메니아 공국(1080-1198) 및 십자군 전쟁 과정에서 이 나라가 승격하며 형성된 킬리키아 아르메니아 왕국(1198-1375)임.

들을 지리적으로 분단하는 입지조건 또한 가진다. 이는 이슬람 세계의 지정학적 분열과 더불어, 제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과 레반트 일대의 방어병력은 물론 예루살렘과 레반트를 노리던 파티마 왕조의 군대까지도 각개격파하고 예루살렘 수복 및 십자군 국가 건국에 성공할 수 있었던 지리적 배경이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V. 제1차 십자군 전쟁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재해석

앞 장에서 살펴본 상기한 내용을 통해 도출한 제1차 십자군 전쟁의 스케일별 주요 요인과 행위자를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에 정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1차 십자군 전쟁의 발발 원인, 과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재해석할 수 있다.

첫째, 봉건혁명이라는 전성기를 맞이했던 서유럽 스케일은 인구증가, 경제발전 등과 더불어 몰락귀족의 증가와 같은 봉건혁명이 초래한 모순에 시달리기도 하면서 그 힘을 외부로 방출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강력한 이념적·종교적·정치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었지만

성직자의 부패와 타락, 세속군주 및 봉건제후와의 경쟁 등의 어려움에 처해 있던 로마 가톨릭 교회 역시 이를 타개할 돌파구가 필요했다.

이 같은 서유럽 스케일의 행위자와 요인은, 비록 교리가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그리스도교 세계에 속했던 동로마 제국 아나톨리아반도 상실과 이에 따른 이슬람 세력의 팽창 및 위협 증대라는 동로마 및 이슬람 스케일의 요인, 그리고 셀주크 제국의 대두에 따른 예루살렘 성지 순례 기회 차단이라는 예루살렘 스케일의 요인과 상호 연결되면서 서유럽 세계가 제1차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 쇠락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강대국에 속했던 동로마 제국 스케일은 각지에서 모인 봉건제후, 기사들로 이루어진 제1차 십자군 병력이 체계를 갖춘 군대로 조직화되는 스케일적 요인을 제공했다. 서유럽은 봉건제가 지배하는 지리적 스케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1차 십자군은 각지의 제후, 기사, 수도자 등이 모여 이루어진 병력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적 열망이나 현실적 이해관계와는 별개로 명령체계를 확립하고 보급체계를 정비하며 조직력을 굳히는 데 한계가 따를 소지가 컸다. 동로마 제국은 비록 아나톨리아반도 수복 이후 십자군에

표 1. 제1차 십자군 전쟁과 관련된 4대 스케일 및 각 스케일별 주요 요인과 행위자

스케일	주요 요인과 행위자
서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건제의 성숙과 봉건혁명에 따른 서유럽의 사회경제적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생산성의 향상에 따른 인구와 경제력의 증가 • 귀족층의 분화와 몰락 귀족의 증가 -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유럽을 정신적으로 지배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회적 권위 • 귀족, 봉건제후 등과의 경쟁 속에서 빚어진 교회의 부패와 타락
동로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학적 여건에 따른 외침의 지속과 이에 따른 영토 축소, 국력 약화 - 아나톨리아반도의 상실: 국력의 극심한 쇠퇴와 국가 존망의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핵심부 상실 및 수도 콘스탄티노플의 외침 노출 • 아나톨리아반도 수복: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지원 절실
이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바스 왕조의 분열·쇠퇴와 튀르크계 셀주크 제국의 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슬람 세계의 영역 팽창 - 셀주크 제국의 분열과 시아파 파티마 왕조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셀주크 제국 영토: 룸 술탄국을 비롯한 토호국으로 분열 • 파티마 왕조: 셀주크 제국과 예루살렘, 레반트를 놓고 대립
예루살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리스도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공통된 성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리스도교의 교리상 매우 중요한 성지이자 총대주교좌 - 셀주크 제국의 대두에 따른 예루살렘 성지순례 기회의 차단 - 산악과 구릉이 발달한 예루살렘 및 레반트 일대의 지형

대한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로 돌변하기는 했지만, 십자군 병력이 집결하여 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공간적·시간적 여건을 제공했을뿐만 아니라 자국군 병력과 군수물자까지도 제공함으로써 십자군의 전력 강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 즉, 서유럽 각지에서 모여든 제1차 십자군은 동로마 제국이라는 지리적 스케일을 바탕으로 온전한 군대 체계와 조직을 갖추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 한편으로 동로마 제국은 서유럽과 달리, 어디까지나 성지 예루살렘이 아닌 아나톨리아반도 수복에 주안점을 두었다. 즉, 동로마 제국과 서유럽은 십자군 전쟁의 촉발을 주도한 스케일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지만, 전쟁의 목적 및 이와 관련한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상이한 관점을 가진 스케일이었다. 두 스케일 간의 이 같은 상이한 요인과 행위자는, 제1차 십자군이 제1차 십자군이 레반트와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악전고투하며 적지 않은 손실을 누적하는 데도 영향을 주었다.

셋째, 제1차 십자군 당시 이슬람 세계는 겉으로 볼 때는 이슬람교가 지배하는 지정학적·문화지리적 스케일이었지만, 실제로는 중대한 변화와 분열을 겪고 있었다. 우선 셀주크 제국이 대두하면서, 이슬람 세계는 아랍인 중심의 스케일에서 튀르크인이 강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스케일로 변모하고 있었다. 게다가 셀주크 제국의 대두는 이슬람 세계를 아바스 왕조와 같은 통일 왕조가 지배하는 스케일이 아닌, 파티마 왕조라는 시아파 스케일과 수니파 셀주크 제국이라는 수니파 튀르크계 스케일로 분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아울러 셀주크 제국 역시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일 왕조 스케일을 이어 가지 못하고, 룸 술탄국 등 다양한 하위 스케일로 분열했다. 이 같은 이슬람 세력 스케일의 변화와 분열은, 외부로 세력을 발산할 단계에 와 있었던 데다 셀주크 제국 및 튀르크인에 대한 공포까지 퍼지기 시작했던 서유럽 스케일의 행위자, 아나톨리아반도 수복이 절실했던 동로마 제국 스케일의 행위자,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성지이자 지정학적·군사지리적 요지라는 성격도 가졌던 예루살렘 스케일의 행위자와 상호연결되며 제1차 십자군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다.

넷째, 성지 예루살렘은 그리스도교의 성지였기 때문에, 셀주크 제국에 의한 성지순례 기회 차단이 그 자체로 제1차 십자군 전쟁의 발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스케일적 요인이었다. 게다가 예루살렘은 셀주크 제

국 스케일과 파티마 왕조 스케일을 지정학적·군사지리적으로 분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한 데다,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가진 스케일이기도 했다. 이는 이슬람 세계 스케일의 변화와 분열, 힘의 발산과 팽창이 시급했던 서유럽 스케일의 상황 등과 같은 외부 스케일적 요인 및 행위자와 상호연결되면서, 제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 정복에 성공할 십자군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제1차 십자군 전쟁은 전쟁 이전에는 이슬람 세력의 스케일에 속했던 예루살렘과 레반트 일대에, 4개의 십자군 국가라는 새로운 지리적 스케일이 형성되는 스케일적 변화를 야기했다. 십자군 국가는 이슬람 세계의 지리적 스케일 변화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 십자군 국가는 십자군이 주축이 된 만큼 서유럽 세계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실제로 서유럽 국가와 교류하며 이슬람 세력의 대두 이후 쇠퇴한 지중해 무역이 부활하는 계기를 만드는 등 서유럽, 지중해 등의 스케일에도 변화를 가져 왔다. 그런 한편으로 십자군 국가는 십자군이 주도한 만큼 서유럽과 관계가 깊었지만, 서유럽과 거리가 멀었고 동로마 제국, 이슬람 세력 등으로 인해 서유럽과의 육상 교통로를 통한 연결에도 제한이 따랐던 데다, 최장 2세기 가까이 존속하는 동안 그들의 영역을 완전히 그리스도교 문화권으로 바꾸는 데도 실패하는 등 서유럽과는 엄연히 차별화되는 스케일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Blaydes and Paik, 2016). 나아가 제1차 십자군 전쟁으로 수립된 4개의 십자군 국가는 에데사 백국이 1150년에 멸망하고 1187년 예루살렘 왕국이 아이유브 왕조에게 예루살렘을 빼앗기는 등 부침을 거듭했지만, 한편으로 이슬람 세력의 발흥으로 인해 쇠퇴했던 지중해 무역의 부흥을 가져오는가 하면 본래 동로마 제국의 영토였던 키프로스가 1192년 제3차 십자군 전쟁 과정에서 십자군 국가인 키프로스 왕국으로 재탄생하게 만드는 등 동로마 제국, 이슬람 세력 등의 스케일에 지속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또다른 스케일적 요인 및 행위자로도 작용했다. 요컨대 서유럽, 동로마 제국, 이슬람 세력, 예루살렘 등의 스케일이 상호작용하며 일어난 제1차 십자군 전쟁은, 십자군 국가라는 새로운 지리적 스케일의 형성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서구 세계의 지리적 스케일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제1차 십자군 전쟁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접근에 기초한 지리적 관점에서의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서 제1차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서유럽과 동로마 제국 스케일, 십자군의 침공을 받은 이슬람 세계 스케일, 그리고 제1차 십자군의 목표였던 예루살렘 및 십자군 국가들이 세워진 장소인 레반트 해안지대 스케일의 여러 요인과 행위자들이 어떻게 관련되고 상호작용하며 제1차 십자군 전쟁으로 이어졌는가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해석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제1차 십자군 전쟁은 서유럽, 동로마 제국, 이슬람 세력, 성지 예루살렘이라는 상이한 스케일의 다양한 요인과 행위자가 상호연결되며 일어났고, 통일성이나 조직력을 갖추기에 적합하지 못한 측면도 다분했던 제1차 십자군이 조직력을 갖춘 뒤 남하하여 악전고투까지 거듭하면서도 결국 예루살렘 점령에 성공한다는 전쟁의 과정과 결과 역시 이 같은 다양한 스케일의 상호관련성과 무관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처럼 다중스케일적 맥락과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전개되었던 제1차 십자군 전쟁은, 십자군 국가라는 새로운 지리적 스케일의 형성으로 이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서구 세계 전체의 스케일 변화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점에서 십자군 전쟁은 서구 세계의 다양한 스케일적 요인과 행위자가 상호연결되며 일어난 다중스케일적 전쟁인 동시에, 서구 세계의 지리적 스케일 재편까지도 불러온 전쟁이었다고 재해석할 수 있다.

십자군 전쟁은 그 역사적·지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전쟁이나 침략전쟁, 또는 완전히 실패한 전쟁 정도로 제한된 접근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제1차 십자군 전쟁에 대한 한층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이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이 같은 논의에 토대한 전쟁사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접근은, 전쟁사에 대한 이해와 논의를 심화하는 데 의미있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후속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제1차 십자군 전쟁만을 분석하였다. 즉, 본 연구는 제2·9차 십자군 전쟁에 대한 해석이나 성찰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후속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재접근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제2·9차 십자군

전쟁과 중요하게 관계되는 십자군 국가의 영역 및 스케일 변화를 다중스케일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고 재조명한다면, 제1차 십자군 전쟁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십자군 전쟁 전반에 대한 지리적·다중스케일적 이해를 더한층 심화·다각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다중스케일적 접근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연구의 현실적인 문제와 지면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서유럽, 동로마, 이슬람 세계 등 큰 스케일의 행위자와 요인을 위주로 다루었다. 제1차 십자군 전쟁에 대한 보다 심도 있고 다각적인 다중스케일적 재해석이 이루어지려면, 이들 스케일 외의 다양한 스케일에 대한 지속적인 다중스케일적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註

- 1) 트리폴리 백국의 트리폴리는 오늘날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가 아니라, 레바논 트리블로스의 옛 지명이다.
- 2) 십자군이라는 뜻을 가진 프랑스어 단어 ‘croisades’는 십자군의 어원을 잘 보여 준다.
- 3) 니코폴리스 십자군이라는 명칭은 이들이 1396년 니코폴리스 전투에서 오스만 제국군과 격돌했다는 데서 유래했다. 니코폴리스는 오늘날 불가리아 니코폴시이다. 니코폴리스 전투에서 니코폴리스 십자군은 오스만 제국군에게 참패한 채 와해하였고, 이는 훗날 오스만 제국이 발칸반도는 물론 헝가리 일부까지 영토를 넓히는 데 영향을 주었다 (Kranzieritz, 2020).
- 4) 보수파 성직자들에게 불법적으로 구금당한 뒤 화형당한 진보 성향의 보헤미아 성직자 얀 후스(Jan Hus)를 추종하던 가톨릭 신도들이 만든 그리스도교 종파로, 그 신도들은 후스 전쟁(1419-1434)을 통해 신앙의 자유를 쟁취했다. 종교개혁기의 루터파·칼뱅파 개신교와 달리 보헤미아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지는 못했지만, 종교개혁의 선구라고도 평가받는 후스파 그리스도교는 오늘날 개신교의 한 종파로 인정받고 있다(Fudge, 2017).
- 5) 일레로 Xiang(2013)은 이주 문제를 주제로 하는 문화인류학 연구와 관련하여, 이주지와 정착지를 동시에 분석하는 방법론인 다중지역 문화인류학(multi-sited ethnography)을 넘어 이주지, 정착

- 지 등의 스케일적 상호관련성에 초점을 맞춘 다중스케일적 문화인류학(multiscalar ethnography)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 6) 물론 제1차 십자군 전쟁에 참전한 십자군 구성원들이 죄다 이런 유형의 인물은 아니었다. 일례로 제1차 십자군 전쟁의 주요 지도자이자 트리폴리 백국의 창건자이기도 한 툴루즈 백작 레몽(Raymond IV de Toulouse)은 백작 작위를 가진 고위 귀족이었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알아주는 세력가이자 부자였다(Frankopan, 2012, 이종인 역, 2018).
 - 7) 카노사의 굴욕은 흔히 중세 서유럽에서 교회 권력이 절정에 다다랐음을 보여 주는 사례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요인이 얽혀 일어난 일이었다. 하인리히 4세는 왕권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제국령 내의 제후들과 충돌했고, 가톨릭 교회의 사제 서임권을 확보하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교황과도 대립했다. 이런 가운데 하인리히 4세와 대립했던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들은, 자신들과 공통된 정적을 가졌던 그레고리우스 7세와 제후했다. 제후들과의 제후를 통해 정치적·군사적 힘을 얻은 그레고리우스 7세는 하인리히 4세를 파문했고, 종교적·정치적인 정당성에 치명타를 입은 데다 국내 제후들의 지지까지 잃어 정치적으로 고립된 하인리히 4세는 카노사 백작 마틸데(Matilde di Canossa)의 중재 아래 교황에게 사죄하며 파문을 취소받을 수 있었다. 카노사의 굴욕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11세기 서유럽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했음을 보여 주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신성 로마 제국 제후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그레고리우스 7세는 하인리히 4세를 정치적으로 굴복시키기 어려웠을 것이다(Seibt, 1987, 차용구 역, 2013).
 - 8) 로베르 기스카르가 지도했던 노르만 세력은 19세기까지 명맥을 이어 간 시칠리아 왕국의 토대가 되었다(Loud, 2013).
 - 9) ‘지하드’는 본래 분투, 끈질긴 노력 등을 뜻하는 아랍어 단어로, 이슬람교 교리에서 지하드는 성전뿐만 아니라 종교적 신념을 관철하기 위한 금욕, 봉사, 헌신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Mulyati, 2019).
 - 10) 무슬림 간의 전쟁과 살육을 금기시하는 이슬람교의 교리 때문에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등은 튀르크인 등의 이민족 용병으로 군대를 조직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는 이들 이민족 용병 세력이 아바스 왕조에 반기를 들면서 아바스 왕조가 쇠락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Latham, 2011).
 - 11) 칼리파가 종교와 정치를 아우르는 최고지도자의 의미를 갖는 데 반해, 술탄은 정치지도자로서의 군주를 뜻한다.
 - 12) 서기 300년 무렵 아르메니아에서 형성된 그리스도교의 분파로, 역사적·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칼케돈 공의회에서 확립된 교리를 온전히 따르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오늘날 아르메니아의 주류 종교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단이 아닌 그리스도교의 한 분파로 인정받고 있다(Corley, 2010).
 - 13) 룸 술탄국의 ‘룸(Rûm)’은 아랍어, 페르시아어 등으로 로마라는 뜻으로, 이 나라가 동로마의 핵심 부였던 아나톨리아반도에 영토를 둔 데서 기인하는 명칭이다. 룸 술탄국은 사실상 독립국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지만, 건국자 쉴레이만 1세가 애초에 술탄이 아닌 샤흐(shah)를 칭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셀주크 제국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고 이 때문에 룸 술탄국을 ‘셀주크 룸 술탄국(Seljuk Sultanate of Rûm)’이라고 표기하기도 한다(Peacock, 2006).
 - 14) 동로마 제국의 황후 아이리아 풀케리아(Aelia Pulcheria)의 소집에 따라 콘스탄티노플 인근의 칼케돈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별개로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는 교리를 확정했고, 이에 따라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신성과 인성을 완전 분리 또는 합일화된 것으로 간주하는 교리를 가진 아리우스파, 네스토리우스파 등의 비칼케돈파 그리스도교 종파는 이단으로 규정된 뒤 몰락하거나 소수 종파로 전락했다(장준철, 2021).
 - 15) 칼케돈 공의회로 수립된 그리스도교 5대 총대주교좌는 로마, 콘스탄티노플, 안티오키아,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이며, 이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외에도 몇 개의 총대주교좌를 더 설치·운영해 왔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은 로마 총대주교좌의 총대주교일 뿐만 아니라 초대 교황인 베드로의 후계자로 교회를 대표하는 수장 역할을 하며, 로마 교황청과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좌가 속한 동로마 제국 간의 알력 다툼은 동로마 제국이 교황청과 결별하며 정교회를 세우는 동서 교회의 대분

열이 일어나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장준철, 2021).

- 16) 성서에 등장하는 대천사 가브리엘과 동일한 천사이다.
- 17) 아인잘루트 전투는 몽골 제국의 원정 과정에서 몽골 제국군이 처음으로 패배한 전투이자, 거듭된 정복전쟁 끝에 작전한계점에 봉착해 가던 몽골 제국의 원정이 실질적으로 막을 내린 계기라고 평가받기도 한다(Kiffer, 2019).

참고문헌

김능우·박용진 편역, 2020, 「기독교인이 본 십자군, 무슬림이 본 십자군: 십자군 관련 동시대 유럽어 사료, 아랍어 사료 번역,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박배균, 2012, “한국학 연구에서 사회-공간론적 관점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대한지리학회지*, 47(1), 37-59.

박배균·최영진, 2014, “마산수출자유지역의 형성을 둘러싼 국가-지방 관계에 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9(2), 113-138.

신성윤, 2019,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경전에 나타나는 예루살렘과 그 의미에 관한 소고” *한국중동학회논집*, 40(1), 97-126.

이동민, 2022a, “대러시아 관계에 있어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분열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접근: 드니프로강은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지정학적으로 분단했는가?” *문화역사지리*, 34(3), 67-87.

이동민, 2022b, “중국 초한전쟁기(기원전 206-기원전 202년) 정형 전투(井陘之戰)에 대한 군사지리학적 재해석” *한국지리학회지*, 11(1), 121-136.

이동민·권은주·최재영, 2016, “초등사회과 지리영역에서 도시 관련 내용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수업 적용 방안 모색” *한국지리학회지*, 5(3),

이에진·박지훈, 2016, “충남 공주시 문화유적의 입지특성: 지형분석과 GIS 분석을 활용하여” *한국지리학회지*, 5(2), 143-154.

장준철, 2021, 「서양 중세의 교황관 정치적 갈등과 투쟁의 역사, 서울: 혜안

최성재·박지훈·이에진, 2016, “충남 공주지역 문화유적의 지리적 입지 연구” *한국지리학회지*, 5(3), 303-313.

한주성, 2018, “지역관련 학문의 맥락적 이해와 관계론적 접근

근방법”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4(1), 32-50.

홍용진, 2014, “침략과 이주, 제1차 십자군과 예루살렘 왕국” *Homo Migrants*, 10, 55-68.

황진태·박배균, 2014, “구미공단 형성의 다중스케일적 과정에 대한 연구:1969-73년 구미공단 제1단지 조성과정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1), 1-27.

황진태·전원근, 2020, “제국의 영역의 다중스케일적 형성과정 분석: 1930년대 일제의 일본해호수화(日本海湖水化)론을 사례로” *문화역사지리*, 32(3), 4-19.

Abels, R., 2009, The historiography of a construction: “Feudalism” and the medieval historial, *History Compass*, 7(3), 1008-1031.

Barber, M., 2000, *The Cathars: Dualist Heretics in Languedoc in the High Middle Ages*, London: Routledge.

Barrett, S., 2013, The necessity of a multiscalar analysis of climate justic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7(2), 215-233.

Berger, M., 2014, *A Brief History of Islam in Europe: Thirteen Centuries of Creed, Conflict and Coexistence*, Leiden, The Netherlands: Leiden University Press.

Blaydes, L., and Chaney, E., 2011, The Feudal Revolution and Europe’s rise: Institutional divergence in the Christian and Muslim worlds before 1500 CE,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Association*, 1-34.

Blaydes, L. and Chaney, E., 2013, The feudal revolution and europe’s rise: Political divergence of the christian west and the muslim world before 1500 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7(1), 16-34.

Blaydes, L. and Paik, C., 2016, The impact of Holy Land Crusades on state formation: War mobilization, trade integra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Medieval Europe, *International Organization*, 70, 551-586.

Boas, A.J., 2001, *Jerusalem in the Time of the Crusades: Society, Landscape and Art in the Holy City Under Frankish Rule*, London: Routledge.

Brenner, N., 2001, The limits of scale? Methodological reflection on scalar construc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5(4), 569-589.

- Bruslé, L.P., 2013, The border as marker of territoriality: Multi-scalar perspectives and multi-agent processes in a South American borderland regions, *Geopolitics*, 18(3), 584-611.
- Corley, F., 2010, The Armenian Apostolic Church, in Corley, F., ed., *Eastern Christianity and the Cold War, 1945-91*, London: Routledge, 207-221.
- Çelik, N., 2010, Black sea and the balkans under ottoman rule, *Karadeniz Araştırmaları*, 24, 1-27.
- Clark, C., 2012, *The Sleepwalkers: How Europe Went to War in 1914*, London: Penguin(이재만 역, 2019, 『몽유병자들: 1914년 유럽은 어떻게 전쟁에 이르게 되었는가』, 서울: 책과함께).
- Davies, S. and Davis, J.L., 2007, Greeks, venice, and the ottoman empire, *Hesperia Supplements*, 40, 25-31.
- Fagan, B., 2009, *The Great Warming: Climate Change and the Rise and Fall of Civilizations*, London: Bloomsbury.
- Frankopan, P., 2012, *The First Crusade: The Call from the Eas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이종인 역, 2018, 『동방의 부름: 십자군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서울: 책과함께).
- Frazer, C., 2007, 1054 revisited, *Journal of Ecumenical Studies*, 42(2), 263-279.
- Fudge, T.A., 2017, *The Crusade Against Heretics in Bohemia, 1418-1437: Sources and Documents for the Hussite Crusades*, London: Routledge.
- Gat, A., 2006, *War in Human Civilization*,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오숙은·이재만 역, 2017, 『문명과 전쟁』, 파주: 교유서거).
- Gerwarth, R., 2016, *The Vanquished: Why the First World War Failed to End*, New York: Strau and Giroux(최파일 역, 2016, 『왜 제1차 세계대전은 끝나지 않았는가: 폭력과 갈등으로 얼룩진 20세기의 기원』, 파주: 김영사).
- Goulder, M., 2004, Deutero-Isaiah of Jerusalem,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28(3), 350-362.
- Hanawalt, B.A., 1975, Fur-collar crime: The pattern of crime among the fourteenth-century english nobility, *Journal of Social History*, 8(4), 1-17.
- Haskins, C.H., 1927, *The Renaissance of the Twelfth Centu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이희만 역, 2018, 『12세기 르네상스』, 서울: 혜안).
- Hassink, R., Isaksen, A., and Trippel, M., 2019, Toward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new regional industrial path development, *Regional Studies*, 53(11), 1636-1645.
- Henry, E.R., Shields, C.R., and Kidder, T.R., 2019, Mapping the Adena-Hopewell Landscape in the Middle Ohio Valley, USA: Multi-Scalar Approaches to LiDAR-Derived Imagery from Central Kentucky, *Journal of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26(4), 1513-1555.
- Howard, M., 2009, *War in European History*,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Keegan, J., 1993, *A History of Warfare*, New York: Vintage(유병진 역, 2018, 『세계전쟁사』, 서울: 까치).
- Kiffer, A.G., 2019, *Battle of Ayn Jalut, September 3rd, 1260*, Joinville, Brazil: Clube de Autores.
- Kowner, R., 2006, Between a colonial clash and World War Zero: The Impact of the Russo-Japanese War in a global perspective, in Kowner, R., ed., *The Impact of the Russo-Japanese War*, London: Routledge, 1-25.
- Kötter, J.-M., 2022, Palestine at the periphery of ecclesiastical politics? The bishop of Jerusalem after the Council of Chalcedon, in Klein, K. M., and Wienand, J., eds., *City of Caesar, City of God: Constantinople and Jerusalem in Late Antiquity*, 241-259.
- Kranzieritz, K., 2020, The road to Nicopolis, part 1: The route of the crusade of 1396 through Hungary, *Hadtudományi Szemle*, 13(2), 129-141.
- Laine, J.P., 2016, The multiscalar production of borders, *Geopolitics*, 21(3), 465-482.
- Latham, A.A., 2011, Theorizing the crusades: Identity, Institutions, and religious war in medieval Latin Christendom,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5, 223-243.
- Lightfoot, C., 2007, Trade and industry in Byzantine Anatolia: The evidence from Amorium, *Dumbarton Oaks Papers*, 61, 269-286.
- Loud, G. A., 2013, *The Age of Robert Guiscard: Southern Italy and the Norman Conquest*, New York: Routledge.

- Maalouf, A., 1983, *Les Croisades vues par les Arabes*, Paris: Jean-Claude Lattès(김미선 역, 2002, 「아랍인의 눈으로 본 십자군 전쟁」, 서울: 아침이슬).
- Marro, C., 2010, Where did late chalcolithic chaff-faced ware originate? Cultural dynamics in Anatolia and Transcaucasia at the dawn of urban civilization (ca 4500-3500 BC), *Paléorient*, 36(2), 35-55.
- Megoran, N., 2010, Toward a geography of peace: Pacific geopolitics and evangelical Christian Crusade apologies,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5, 382-398.
- Metcalf, D.M., 1995, *Coinage of the crusades and the Latin East in the Ashmolean Museum*, Oxford, London: Royal Numismatic Society.
- Minohara, T., 2016, The Russo-Japanese War and the transformation of US-Japan relations: Examining the geopolitical ramifications, *The Japanese Journal of American Studies*, 27, 45-68.
- Mulyati, S., 2019, The meaning of Jihad: Textual and contextual interpretations, *Social Sciences & Humanities*, 27(1), 419-424.
- Ostrogorsky, G., 2006, *Byzantinische Geschichte 324-1453*, 2nd edition, München: Verlag(한정숙·김경연 역, 2014, 「비잔티움 제국사 324-1453」, 서울: 까치).
- Park, B.-G., 2005, Globalization and local political economy: The multi-scalar approach, *Global Economic Review*, 34(4), 397-414.
- Peacock, A.C., 2006, Georgia and the Anatolian Turks in the 12th and 13th centuries, *Anatolian Studies*, 56, 127-146.
- Rüger, J., 2007, *The Great Naval Game: Britain and Germany in the Age of Empir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ibt, F., 1987, *Glanz und Elend des Mittelalters*, München: Verlag(차용구 역, 2013, 「중세, 천년의 빛과 그림자: 근대 유럽을 만든 중세의 모든 순간들」, 서울: 현실문화).
- Stouraitis, I., 2011, Jihād and crusade: Byzantine positions toward the notions of “holy war,” *Byzantina Symmeikta*, 21(1), 11-63.
- Taylor, J.E., 1998, Golgotha: A reconsideration of the evidence for the sites of Jesus’ crucifixion and burial, *New Testament Studies*, 44(2), 180-203.
- Urban, W., 2015, *Medieval Mercenaries: The Business of War*, Barnsley, Yorkshire, UK: Pen & Sword Books.
- Venier, P., 2004, 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and early twentieth century geopolitical culture, *The Geographical Journal*, 170(4), 330-336.
- von Güttner-Sporzyński, D., 2015, Northern Crusades: Between holy war and mission, in Boas, A., ed., *The Crusader World*, London: Routledge, 144-162.
- Wheatley, M. and Johnson, C., 2009, Factors limiting our understanding of ecological scale, *Ecological Complexity*, 6(2), 150-159.
- Xiang, B., 2013, Multi-scalar ethnography: An approach for critical engagement with migration and social change, *Ethnography*, 14(3), 282-299.
- World History Encyclopedia, 2023. 2. 23., “The Byzantine Empire c. 1090 CE”, <https://www.worldhistory.org/image/7754/the-byzantine-empire-c-1090-ce/>
- World History Encyclopedia, 2023. 2. 23., “The First Crusades and the 12th-Century Latin East(Outremer)”, <https://www.worldhistory.org/image/15382/the-first-three-crusades-and-the-12th-century-lati/>
- 교신 : 이동민, 25601, 강원도 강릉시 범일로579번길 24, 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이메일: dr.dongminlee@gmail.com)
- Correspondence: Dong-min Lee, 25601, #24 579beongil, Beomil-ro, Gangneung City, Gangwon-do Province, Republic of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Email: dr.dongminlee@gmail.com)

투고접수일: 2023년 2월 23일
심사완료일: 2023년 3월 10일
게재확정일: 2023년 3월 16일